

백원국 2차관, “안전 최우선 가치에 중점 둔 신속 대응체계” 강조 - 28일 인천국제공항 찾아 풍수해 대응 체계 등 점검·선제적 대응 당부 -

-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월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풍수해 대응 체계 등을 보고받은 뒤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당부하였다.
- 백 차관은 “올해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극한호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에 큰 피해가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신 현장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다”라고 격려하면서,
 - “최근 강력한 호우가 잦아들긴 하였으나, 앞으로도 집중호우와 폭염이 지속될 전망이므로, 지하차도 등 호우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줄 것”과
 - “다가오는 태풍의 동향도 예의주시하며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호우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- 백 차관은 풍수해 대응체계를 보고 받은 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수펌프장과 지하차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, 호우 취약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.
- 또한, 백 차관은 안전 최우선 가치를 모든 활동의 중점에 둘 것을 강조하면서, “피해발생 시 유관 기관과의 신속한 공조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할 것”과
 - “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”을 주문했다.

2023. 7. 28.

국토교통부 대변인